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필요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최경숙 사회복지사

기사 박지혜 객원기자





최근 이혼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시 모현동에 거주하는 4학년~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월요일~토요일까지 중국어, 영어, 논술, 요가, 스포츠 댄스, 사회, 과학, 한자 등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일부의 청소년들이 교육·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청소년 문제예방, 계층 간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효과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으로 학습능력 배양, 체험학습, 급식, 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주로 맞벌이, 저소득가정, 결손가정, 편부모가정의 아이들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 후 학원조차 다니기 힘든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아이들이다.

보통 방과 후 교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과 후 아카데미는 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활동, 복지, 지지, 정서적 도움, 학습까지 즉, 가정과 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사회를 연결하고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곳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와 연결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자신감을 높여주며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힘을 불어넣어준다. 이를 위해서 의복, 반찬 지원은 물론 상담 지원을 통하여 한명 한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업무를 하면서 좋았던 기억과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뭐가 힘들겠어요’. 사실 아이들 모습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

어려운 문제를 지닌 아이의 경우 함께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그래서 어두운 모습이 밝은 모습으로 변화될때 그런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이 행복하다.



또 수시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방문하며 담임선생님과 의 면담을 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는 말수가 적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방과 후 아카데미를 다니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무리의 주체가 되는 등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줘서 좋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또 이곳이야 말로 지역사회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보람을 느낀다.

반면 아이들이 힘들어 할때 나도 같이 힘이 든다. 그 예로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이 중 한명이 골수암으로 입원해 있는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뛰어놀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면 가슴 한 구석이 아파온다.

▶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학교 다닐 때에는 사회복지하면 사실 환상에 젖어 있기도 했었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학교를 다닐 때 부지런히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하고 부딪치는 것이 현장에서 실무자가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사는 이론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마인드, 가치관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복지를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사회체계를 바꾸어 잘사는 사람들의 사회가 아닌 어려운 사람들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 방과 후 아카데미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방과 후 아카데미가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해주지 못하는 역할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곳이 청소년들에게 '편안하게 즐기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이와함께 현재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사소한 부분까지도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SW